

# ‘녹차수도’ 보성군, 군민 생활문화 인프라 구축 ‘총력’

문화·체육·돌봄...복합센터 건립 속도

동·서부 균형 잡힌 문화복지 도시 도약

‘녹차수도’ 보성군이 군민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생활 문화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보성군에 따르면 오는 11월 준공을 앞둔 ‘보성군복합커뮤니티센터’, 2026년 개관을 목표로 ‘별교문화복합센터’ 설립이 추진 중이다.

이 두 복합센터는 단순한 공공시설이 아닌, 보성군민의 문화·체육·가족 돌봄까지 아우르는 미래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성군복합커뮤니티센터는 보성을 보성리 일원에 총 410여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6천154㎡(지하 2층-지상 7층)에 달하는 대형 시설로, 2025년 12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해당 건물에는 ▲볼링장 ▲롤러스케이트장 ▲작은도서관 ▲보성소리 공연장 ▲가족센터(키즈카페, 공동육아나눔터) ▲의회동 ▲생활문화센터 ▲공영주차장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군민의 일상과 문화를 한 곳에 녹여낸 ‘올인원 공간’으로 조성된다.

특히 VR 체험 기반 스마트체육관과 100석 규모의 보성소리공연장 등 보성만의 색깔을 담은 특화 콘텐츠는 향후 지역 관광과 청년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별교읍 회정리 일원에 건립 중인 별교문화복합센터는 연면적 1만524㎡(지상 3층, 3개 동) 규모로, 총 420여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해당 시설은 ▲국민체육센터(수영장) ▲작은영화관 ▲아이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농촌중심지 활성화 복합 공간 ▲공영



보성군복합커뮤니티센터 조감도(왼쪽)와 별교문화복합센터 조감도.



〈보성군 제공〉

주차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25년 말까지 내·외부 마감공사를 마치고, 2026년 5월 최종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아이

돌봄센터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은 별교읍 권 생활 인프라 불균형 해소와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보성군의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보성도 여가

와 문화 도시’라는 새로운 인식 전환을 이끌고 있다. 군정이 위치한 보성읍, 인구 밀집 지역인 별교읍을 중심으로 동·서부 균형 있는 여가 인프라 확충과 세대 통합형 공간 조성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제 보성에서도 퇴근 후 가족과 함께 볼링을 즐기고, 주말엔 아이들과 롤러장·VR 체험, 별교에선 수영장과 작은 영화관까지 누릴 수 있는 균형 잡힌 문화복지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군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고,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내는 변화된 보성의 삶이 시작될 것”이라며 “그동안 알차게 준비해 온 만큼, 군민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는 사업이 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전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 순천 ‘대한민국 대표 치유도시’ 청사진 마련

새정부 지역공약·현안사업 업무보고회

메가시티 등 5대 핵심 테마 중심 ‘구체화’

순천시가 ‘대한민국 대표 치유도시’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새정부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8일 순천시에 따르면 전남 시청 대회의실에서 노관규 순천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전 실·국장과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

보고회는 새정부 공약, 2030 미래비전, 정부 재정주요 분석 및 시 재정운영방향 브리핑으로 시작됐으며 ▲영호남 메가시티 실현 ▲남중권 新경제거점 미래첨단 산업벨트 구축 ▲세계적인 생태도시로 도약 ▲명품 정주환경 ▲민생경제·돌봄 등 5대 핵심 테마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날 조 언론인 브리핑을 통해 밝힌 치유도시에 대한 부서별 세부 전략이 집중 논의됐고 이재명 정부의 지역공약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구체화됐다.

전남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돼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된 순천의 8대 지역 공약은 ▲서남해안 생태·해양·치유 관광 벨트 조성 ▲미래 농생명·식품 거점 K-그린바이오 산업 육



성 ▲경전선·전라선 초광역 철도교통망 확충 ▲국립순천대-목포대 통합의과대학 설립 ▲글로벌 문화산업의 메가 K-디즈니 조성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조성 ▲국립민속박물관 순천 분관 건립 ▲호남권 산림복제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확정된 정부 추경 편성에 발맞춰 민생경제 회복 방안도 논의 됐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연계한 순천사랑 상품권 확대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노관규 시장은 “유연성을 발휘해 그동안 추진해온 산업 다각화 기반 위에 중앙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치유산업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 바이오산업까지 아우르는 그 어느 도시에서도 흉내 내지 못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구체화된 지역공약과 현안 사업이 향후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긴밀하게 협력해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정기 기자

## 곡성 목사동면 들말센터,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

자율계정 부문...정주 여건 개선 등 기여

곡성군은 “최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자율계정 우수사례’에 목사동면 들말센터가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매년 균형발전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성공 사례 확산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사업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서면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자율계정 부문에서 목사동면 들말센터가 최종 우수사



곡성군 목사동면 들말센터 전경. 〈곡성군 제공〉

례로 선정됐다.

들말센터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

으로 조성된 복합공간으로,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과 공동체 역량 강화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무인카페 운영, 청소년 영어회화 교실, 실버댄스 동아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며, 지역 대표 로컬문화 거점으로 자리잡았다.

조상대 곡성군수는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곡성군민의 참여와 공동체 정신이 만든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 광양, 호주 울런공시와 우호도시 협력 ‘물꼬’

미래산업·문화·교육 협력 논의

광양시가 호주 울런공시와 산업·문화·교육 분야의 실질적 교류 방안을 모색했다.

8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4박1일 일정으로 이화엽 미래산업국장을 비롯한 시 실무대표단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울런공 시(City of Wollongong)를 방문해 도시 간 우호 협력 강화

를 다졌다. 대표단은 울런공 시의회를 찾아 타니아 브라운 시장과 면담하고 우호도시 협정을 제안했으며, 울런공시가 주최한 공식 교류 행사에서는 주요 경제·행정 기관 관계자들과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블루스콧 스틸, 포트 캠블라 등 핵심 산업시설을 시찰하고 울런공 아트갤러리, 공연

장 등 문화 기반도 살폈다.

특히 울런공대 이노베이션 캠퍼스를 찾아 수소, 2차전지 등 미래산업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청소년 단기교류 등 인적 교류에 대한 실무 논의도 진행했다.



광양시 대표단이 호주 울런공시 관계자들과 공식 교류·현영행사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는 향후 창업·문화 등 실질적 협력 분야부터 접근해 우호도시 체결로 연계할 계획이다.

이화엽 광양시 미래산업국장은 “울런공시 방문은 북미·호주 등 영어권 도시와의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계기였다”며 “앞으로 산업·문화·창업·인재 교환 등 실질적인 분야부터 협력을 시작해 우호도시 체결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 담양군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사업’ 공모 접수

25일까지 읍·면사무소...최대 5억 지원

담양군은 8일 오는 “25일까지 ‘2026년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사업’ 공모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사업은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가꾸는 생활권 숲을 통해 지역 공동체 회복과 생활환경 개선을 동시에 꾀하는 사업으로, 전남도 ‘숲 속의 전남’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공모 대상은 5인 이상 주민모임 또는 비영리 단체 등으로, 국공유지 또는 마을소유지 등 공공성을 갖춘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민간 소유 토지도 5년 이상 사용 승

사업 유형은 쉼터숲형, 풍치숲형, 소득숲, 기타 특화숲 조성뿐 아니라 기존 참여숲의 정비와 보완 사업도 가능하다.

대상지별 최대 5억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사업비에는 숲 조성뿐 아니라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편의시설 설치 등도 포함된다.

담양군은 오는 25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으며, 자체 심사를 거쳐 전남도에 추천할 계획이다. 이후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전남도 현장심사, 8월 말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지가 결정된다.

장운정 산림정원과장은 “마을숲, 골목숲 등 지역에 어울리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 장흥군의회, 제300회 임시회 개최

11일까지 총 25건 안건 심의

장흥군의회는 8일 “오는 11일까지 제300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임시회에서는 ‘장흥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2025년도 장흥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첫 날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결정하고, 8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접수안건을 심사했다.

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마지막

날인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 후 폐회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는 장흥군의회가 개원 이후 34년 만에 맞이한 제300회 회기로, 그동안 군민과 함께 걸어온 의정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군민의 뜻을 군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재승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장흥군의회가 제300회를 맞이하는 뜻깊은 자리이자, 군민 삶과 직결된 조례와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군민과 함께하

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 구례군, 상하수도요금 전용 홈페이지 개설

24시간 어디서나 간편 처리

구례군은 8일 “군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상하수도 요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요금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화 문의나 종이고지서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요금 조회 및 납부가 ▲요금 조회·납부 ▲자동이체 신청(계좌, 카드) ▲스마트고지(카카오톡, 문자) 신청 ▲수용가

이에 군민들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비대면으로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서비스는 구례군청 홈페이지 내 ‘분야별 정보(상하수도)·상하수도요금 조회·납부’ 메뉴를 통해 접속하거나,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에서 홈페이지(<https://www.gurye.go.kr/waterpay>) 주소를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은 물론,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